

보건소 보건간호사의 역할변화, 역할수행의 장애요인과 만족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안 경 숙 · 정 문 숙

Role Change, Job Satisfaction and Obstacles in Carrying out the Role of Public Health Nurses in Health Center

Kyeong Sook Ahn, Moon Sook J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Based on the questionnaires sent to 270 nurses of public health centers in kyungnam during the period of March 19 to April 11 in 1992, this study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the grade of satisfaction, obstacles in carrying out duties concerned with nursing services and the change of nurses role need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local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The first-ranking tasks carried by nurses of public health center are believed to have been family planning activities before the 1970's, nursing services during the 1970's, mother-child health activities during the 1980's, and nursing servic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1992.

As far as the priority order of all the family planning activities is concerned, the counseling of the insertion of intrauterine contraceptive device, the use of oral pill or the distribution of condom was placed emphasis on before 1970, and publicity activities of family planning after that time.

The first priority order of mother-child health activities has been put on the registration of pregnant women since 1970, with prenat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anking next to it.

The priority order for activities against tuberculosis was laid on finding out and registration of new T.B. patients every year, with patients' control, and medication or injection ranking next to it.

As for the priority order of nursing services, traveling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ranked the first stressed activity before 1970, with medication and injection ranking next to it.

The first priority order management activity of communicable diseases was put on vaccination before 1970, with medication and injection. ranking next. And consultation and education ranked second to it during 1990 to 1992.

As for the health services of the aged, traveling examination and treatment ranked the order, with the assistance of medical examination ranking next to it.

Key Words : Public health nurses, Role change, Job satisfaction, Health center

As far as troubles and obstacles shown in case of family planning, the rate of residents' lack understanding was 28.8%, that of lacking budget 13.6%, and the imperfection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system 11.9%. In the case of tuberculosis control, residents' lacking understanding was 32.5%, the deficiency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system 18.2%, over-duty(shortage of hands) 15.6%, and the insufficiency skill and know-how 13.0%. In the case of nursing services, the deficiency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system was 18.2%, each over-duty(the shortage of hands) and the shortage of facilities and equipment 15.6% respective, and residents' lacking understanding 13.0%.

The rate of dissatisfaction with the chance or possibility of promotion for his or her career or capability was shown to be 49.2%, and 65.9% of the health nurses expressed their complaints of the deficiency of the chance of the promotion to a professional or expert. when the public health nurses were asked in the questionnaire whether they were satisfied or not with current state of equipment and facilities needed for public health service, 49.6% of them answered in the negative.

The grade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individual position was shown to be low as much as the status of his or her position was now.

37.6% of those asked in the research answered to have the readiness to switch jobs for the reasons of dissatisfaction and so on with lacking promotion chance as well as bad working condition.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grade of job satisfac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position as found to be in this research, which showed that the lower the status of position was, the lower the grade of job satisfaction was. But little correlation between the grade of job satisfaction and his or her schooling and career was found.

In order to carry out primary health care successfully, it can be said that more educa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to make public health nurses and residents see it in a new light are requested. In addition to it, it is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promotion system for public health nurses and the enlargement of job province should also be taken in consideration of the high dissatisfaction with and complaints of the chance of promotion and the system of position.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hat considerations for system improvement enough to make nursing services pleasant and satisfactory should be taken into.

서론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용이해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으로 최근에 와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주요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만성퇴행성 질환은 그 원인이 다양한데 특히 식습관, 기호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양식, 생활 및 작업환경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개인의 선상과 공중보건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정규철, 1990).

보건소법에서 정한 보건소의 기능은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 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보건교육,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 보건거소, 보건진료소의 직인 및 임무에 대한 지도·감독, 의약에 대한 지도, 기타 진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홍종관, 1991).

그러나 보건소는 지역보건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상기의 기능보다는 보건행정업무와 환자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의 전문 인력중 중요한 위치에 있고 수적으로 많은 인력인 보건간호사는 인간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건강의 평가자, 조정자, 감독자, 교육자, 상담자, 운영자, 협조자 등이며 그 역할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김신희, 1987).

최근 중요 보건사업의 변화로 노인 건강사업, 간호업무 및 만성퇴행성 질환관리가 대두되었으며, 보건소 중심의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보건간호사의 역할도 자연히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보건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분야 혹은 기관의 여건에 따라 이러한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본 보건소 기능을 위한 역할이외에 일반 행정업무 보조, 약사업무, 기타 부족한 보건소 내외인력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있어 본래의 전문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 간호교육과정에서 배운 간호업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단일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대체로 보건소 역할은 만족감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건소 간호사의 다양하고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직업의식이 필요하며 보건간호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때는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한다면 변화된 역할을 인지하고 장애요인을 감소시키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김성자, 1990).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되고 있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요구에 따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역할 변화,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소 및 역할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및 방법

경상남도 30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간호사 270명 전원을 대상으로 1992년 3월 19일부터 1992년 4월 11일 사이에 경남도 보건과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70부 중 기입이 미비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258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담당업무 28문항, 업무수행에 장애요인 5문항,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15문항, 총 53문항이었다.

분석방법은 연대별 보건간호사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항목 수에 따라 점수를 주었다. 즉 7항목인 경우 우선순위 1에 7점, 2에 6점, ...7에 1점을 주어 합산한 점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점하였다. 업무영역별 장애요인과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보건간호사의 특성별 직무만족도는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성 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별로는 25-29세가 41.5%로 가장 많았고, 35-39세가 22.9%, 30-34세가 15.9%, 45세이상 9.3%, 40-44세가 7.4%, 20-24세가 3.1%였다. 학력은 간호전문대학 졸업이 80.6%, 간호고등학교가 18.2%, 간호학과가 0.8%(2명)순이었다. 보건간호사의 경력은 5-9년이 35.3%로 가장 많았고, 1-4년이 27.1%, 10-19년이 25.2%, 1년 이하가 7.8%, 20년 이상이 4.3%순이었다. 보건간호사 이전 병원 경력이 없는 사람이 35.7%였으며 1년이 29.1%, 2년이 10.9%, 5년 이상이 9.7%, 3년이 6.6%순이었다. 현재 직급은 7급이 43.0%, 8급이 36.4%, 9급이 11.6%, 6급이 8.5%순이었다(표 1).

연대별 보건간호사들이 수행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가족계획사업이 1위(59점), 모자보건사업이 2위(56점), 간호업무가 3위(54점), 전염병관리업무가 4위(32점), 결핵사업이 5위(20점), 노인보건사업이 6위(8점)로 나타났다. 1970-1979년대에는 간호업무가 1위(183점), 모자보건사업이 2위(163점), 가족계획사업이 3위(111점), 전염병관리업무가 4위(101점), 결핵사업이 5위(86점)였다. 1980-1989년대에는 모자보건사업이 1위(567점), 간호업무가 2위(566점), 가족계획사업이 3위(522점), 결핵사업이 4위(483점), 전염병관리업무가 5위(347점), 노인보건

사업이 6위(169점)였고, 1990-1992년대에는 간호 업무가 1위(593점), 모자보건사업이 2위(589점), 전염병관리업무가 3위(440점), 결핵사업이 4위(388점), 가족계획사업이 5위(368점), 노인보건사업이 6위(243점)였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인수	%	
연령(세)	20 - 24	8	3.1
	25 - 29	107	41.4
	30 - 34	41	15.9
	35 - 39	59	22.9
	40 - 44	19	7.4
	45 ≤	24	9.3
학력	간호고등학교	47	18.2
	간호전문대학	208	80.6
	간호학과	2	0.8
	무응답	1	0.4
보건간호사 경력(년)	< 1	20	7.8
	1 - 4	70	27.1
	5 - 9	91	35.2
	10 - 19	65	25.2
	20 ≤	11	4.3
	무응답	1	0.4
보건간호사 이전 병원경력(년)	0	92	35.6
	1	75	29.0
	2	28	10.9
	3	17	6.6
	4	19	7.4
	5 ≤	25	9.7
현재직급	무응답	2	0.8
	6	22	8.5
	7	111	43.1
	8	94	36.4
	9	30	11.6
	무응답	1	0.4
합 계	258	100.0	

표 2. 연대별 보건간호사들이 수행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사 업	<1970 (N=12)		1970-1979 (N=52)		1980-1989 (N=139)		1990-1992 (N=25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족계획	59	1	111	3	522	3	368	5
모자보건	56	2	163	2	567	1	589	2
결핵관리	20	5	86	5	483	4	388	4
간호업무	54	3	183	1	566	2	593	1
전염병 관리	32	4	101	4	347	5	440	3
노인보건	8	6	11	7	169	6	243	6
기타*	0	7	18	6	78	7	155	7

* : 보건행정업무, 민원실, 방역사업, 성병검진
 점수 : 7항목 가운데 우선순위 1에 7점, 2에 6점, 3에 5점, 4에 4점, 5에 3점, 6에 2점, 7에 1점을 주어 합한 것임

연대별 가족계획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자궁내장치 삽입 권장과 경구피임약 또는 콘돔 배부가 같이 1위(32점)를 차지하였고, 가족계획 상담 및 교육이 3위(31점), 가족계획 홍보가 4위(28점), 정관 또는 난관 시술 권장이 5위(24점), 월경조절 시술이 6위(17점)를 차지하였다. 1970-1979년대에는 가족계획 홍보가 1위(69점), 경구피임약 또는 콘돔 배부가 2위(61점), 자궁내장치 삽입 권장이 3위(60점), 가족계획 상담 및 교육이 4위(48점), 정관 또는 난관 시술 권장이 5위(44점), 월경조절 시술이 6위(15점)였다. 1980-1989년대에서는 가족계획 홍보가 1위(275점), 정관 또는 난관 시술 권장이 2위(255점), 가족계획 상담 및 교육이 3위(238점), 경구피임약 또는 콘돔 배부가 4위(236점), 자궁내장치 삽입 권장이 5위(223점), 월경조절 시술이 6위(89점)였다. 1990-1992년대에서는 가족계획 홍보가 1위(229점), 가족계획 상담 및 교육이 2위(214점), 경구피임약 또는 콘돔 배부가 3위(185점), 자궁내장치 삽입 권장이 4위(145점), 정관 또는 난관 시술 권장이 5위(116점), 월경조절 시술이 6위(33점)로 나타났다(표 3).

표 3. 연대별 가족계획사업 내용의 우선순위

사 업	<1970 (N=10)		1970-1979 (N=16)		1980-1989 (N=74)		1990-1992 (N=5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정관/난관 시술권장	24	5	44	5	255	2	116	5
자궁내 장치삽입 권장	32	1	60	3	223	5	145	4
경구피임약/콘돔 배부	32	1	61	2	236	4	185	3
월경조절 시술	17	6	15	6	89	6	33	6
가족계획 홍보	28	4	69	1	275	1	229	1
가족계획 상담 및 교육	31	3	48	4	238	3	214	2

점수 : 6항목 가운데 우선순위 1에 6점, 2에 5점, 3에 4점, 4에 3점, 5에 2점, 6에 1점을 주어 합한 것임

연대별 모자보건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임부등록이 1위(66점)를 차지했고 산전진찰이 2위(44점), 예방접종이 3위(41점), 분만관리 4위(39점), 산후관리가 5위(34점), 상담 및 교육이 6위(20점), 성장발육 측

정이 7위(7점)였다. 1970-1979년에는 임부등록이 1위(152점), 산전진찰이 2위(115점), 예방접종이 3위(94점), 분만관리가 4위(71점), 산후관리가 5위(63점), 상담 및 교육이 6위(50점), 성장발육 측정이 7위(39점)였다. 1980-1989년대에도 임부등록이 1위(488점), 산전진찰이 2위(391점), 예방접종이 3위(387점)로 1970년대와 같았고 산후관리가 4위(247점), 분만관리가 5위(199점), 성장발육 측정이 6위(194점), 상담 및 교육이 7위(183점)였다. 1990-1992년대에서 임부등록이 1위(422점), 예방접종이 2위(419점), 산전진찰이 3위(400점), 상담 및 교육이 4위(272점), 산후관리가 5위(212점), 성장발육 측정이 6위(179점), 분만관리가 7위(88점)였다(표 4).

표 4. 연대별 모자보건사업 내용의 우선순위

사업내용	<1970 (N=11)		1970-1979 (N=23)		1980-1989 (N=86)		1990-1992 (N=8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임부등록	66	1	152	1	488	1	422	1
산전진찰	44	2	115	2	391	2	400	3
분만관리	39	4	71	4	199	5	88	7
산후관리	34	5	63	5	247	4	212	5
예방접종	41	3	94	3	387	3	419	2
성장발육 측정	7	7	39	7	194	6	179	6
상담 및 교육 (이유식, 건강관리 등)	20	6	50	6	183	7	272	4

점수 : 7항목 가운데 우선순위 1에 7점, 2에 6점, 3에 5점, 4에 4점, 5에 3점, 6에 2점, 7에 1점을 주어 합한 것임

연대별 결핵관리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신환자 발견 등록이 1위(12점), 상담 및 교육이 2위(10점), 환자 관리 및 투약 주사가 3위(8점)로 나타났다. 1970-1979년대에 신환자 발견 등록이 1위(36점), 환자 관리 및 투약 주사가 2위(28점), 상담 및 교육이 3위(20점)였다. 1980-1989년대와 1990-1992년대에 신환자 발견 등록이 1위, 환자관리 및 투약 주사가 2위, 상담 및 교육이 3위로 우선순위에 큰 변화가 없었다(표 5).

표 5. 연대별 결핵관리사업 내용의 우선순위

사업내용	<1970 (N=6)		1970-1979 (N=14)		1980-1989 (N=70)		1990-1992 (N=5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신환자 발견등록	12	1	36	1	161	1	126	1
환자관리 및 투약 주사	8	3	28	2	147	2	97	2
상담 및 교육	10	2	20	3	105	3	75	3

점수 : 3항목 가운데 우선순위 1에 3점, 2에 3점, 3에 1점을 주어 합한 것임

연대별 간호업무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순회진료가 1위(44점), 주사 및 투약이 2위(40점), 진료보조가 3위(20점), 상담 및 교육이 4위(13점), 환자의뢰가 5위(10점)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1979년대에서는 주사 및 투약이 1위(101점)였고 순회진료가 2위(82점), 진료보조가 3위(69점), 상담 및 교육이 4위(38점), 환자의뢰가 5위(27점)를 나타냈다. 1980-1989년대에서는 주사 및 투약이 1위(376점), 진료보조가 2위(283점), 순회진료가 3위(231점), 상담 및 교육이 4위(200점), 환자의뢰가 5위(104점)를 차지하였다. 1990-1992년대에서도 주사 및 투약이 1위(316점), 진료보조가 2위(270점)였고 상담 및 교육이 3위(179점), 순회진료가 4위(161점), 환자진료가 5위(82점)였다(표 6).

표 6. 연대별 간호업무 내용의 우선순위

업무내용	<1970 (N=11)		1970-1979 (N=26)		1980-1989 (N=90)		1990-1992 (N=8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진료보조	20	3	69	3	283	2	270	2
주사 및 투약	40	2	101	1	376	1	316	1
상담 및 교육	13	4	38	4	200	4	179	3
순회진료	44	1	82	2	231	3	161	4
환자의뢰	10	5	27	5	104	5	82	5

점수 : 5항목 가운데 우선순위 1에 5점, 2에 4점, 3에 3점, 4에 2점, 5에 1점을 주어 합한 것임

연대별 전염병관리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서부터 1990-1992년에 이르기까지 예방접종이 1위, 투약 및 주사와 상담 및 교육이 2위 또는 3위, 의뢰가 4위로 우선순위에

변화가 없었다. 1990-1992년대에서는 예방접종이 1위(212점), 상담 및 교육이 2위(157점), 투약 및 주사가 3위(145점), 의뢰사 4위(41점)를 차지했다(표 7).

표 7. 연대별 전염병 관리(성병, 나병, 법정전염병) 내용의 우선순위

업무내용	<1970 (N=7)		1970-1979 (N=18)		1980-1989 (N=60)		1990-1992 (N=6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예방접종	26	1	62	1	193	1	212	1
투약 및 주사	11	2	45	2	137	2	145	3
상담 및 교육	11	2	44	3	137	2	157	2
의뢰	3	4	10	4	37	4	41	4

점수 : 4항목 가운데 우선순위 1에 4점, 2에 3점, 3에 2점, 4에 1점을 주어 합한 것임

연대별 노인보건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순회진료가 1위(15점), 상담 및 교육이 2위(7점), 검진보조가 3위(4점), 환자의뢰가 4위(2점)였다. 1970-1979년대에서부터 1990-1992년까지는 순회진료가 1위, 검진보조가 2위, 상담 및 교육이 3위, 환자의뢰가 4위로 변화가 없었다(표 8).

표 8. 연대별 노인보건사업 내용의 우선순위

사업내용	<1970 (N=4)		1970-1979 (N=4)		1980-1989 (N=36)		1990-1992 (N=4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검진보조	4	3	9	2	85	2	97	2
환자의뢰	2	4	2	4	50	4	42	4
상담 및 교육	7	2	6	3	75	3	94	3
순회진료	15	1	14	1	101	1	122	1

점수 : 4항목 가운데 우선순위 1에 4점, 2에 3점, 3에 2점, 4에 1점을 주어 합한 것임

사업별 역할수행시 장애요인을 보면 가족계획 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 장애라고 답한 사람이 28.8%, 예산부족이 13.6%, 보건행정 체계 미비가 11.9%였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 장애라고 답한 사람이 21.4%, 예

산부족과 시설 장비의 부족이 17.9%,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이 14.3%로 나타났다. 결핵관리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 부족이 장애라고 답한 사람이 32.5%, 업무과다(인원부족)가 15.6%,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이 13.0%로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사업에 비해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업무에서는 보건행정체계 미비가 18.2%, 업무과다(인원부족)와 시설 장비의 부족이 각각 15.6%, 주민의 이해부족이 13.0%였으며 전염병관리에서는 보건행정체계 미비와 주민의 이해부족이 각각 17.0%, 시설·장비의 부족이 15.4%, 업무과다(인원부족)가 13.9%였다(표 9).

표 9. 사업별 역할수행시 장애요인

장애요인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간호업무		전염병관리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직원간의 비협조	5	8.5	2	2.4	6	7.8	6	7.8	5	7.7
업무과다(인원부족)	6	10.2	6	7.1	12	15.6	12	15.6	9	13.9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	6	10.2	12	14.3	10	13.0	5	6.5	8	12.3
주민의 이해부족	17	28.8	18	21.4	25	32.5	10	13.0	11	17.0
과다한 업무	3	5.1	4	4.8	7	9.1	7	9.1	4	6.2
낮은 직급	1	1.7	1	1.2	1	1.3	3	3.9	1	1.5
보건행정 체계미비	7	11.9	11	13.1	7	9.1	14	18.2	11	17.0
예산부족	8	13.6	15	17.9	5	6.5	8	10.4	6	9.2
시설·장비의 부족	6	10.2	15	17.9	4	5.2	12	15.6	10	15.4
합 계	59	100.0	84	100.0	77	100.0	77	100.0	65	100.0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서 직급에 대한 만족도는 직당하다가 6급 및 7급이 68.4%도 높았고, 8급 및 9급은 너무 낮다에 67.2%를 나타냈다. 경력이나 능력에 비해 승진기회 여부에서는 보통이다가 6,7급이 54.9%로 높았고 불만이다가 8,9급이 64.0%를 나타냈다. 전문직 발전의 기회는 없다가 6,7급이 67.7%로 높았고 8,9급이 64.0%를 나타냈다.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는 직당하다가 6,7급이 72.2%, 8,9급이 66.4%로 나타났다. 보건업무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에 만족여부를 보면 그저 그렇다가 6,7급이 53.4%였으며 만족하지 않음이 8,9급에서 62.4%로 높았다.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적당하다가 6,7급이 64.7%였으며 너무 작다가 8,9급에서 52.0%로 높았다(표 10).

표 10.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

분량내용	응답	6,7급		8,9급		계	
		인수	%	인수	%	인수	%
직급정도	적당하다	91	68.4	37	29.6	128	49.6
	너무 낮다	41	30.8	84	67.2	125	48.4
	무응답	1	0.8	4	3.2	5	1.9
		$\chi^2 = 39.163$		$p = 0.000$			
경력이나 능력에 비해 승진기회 여부	만족하다	13	9.8	2	1.6	15	5.8
	보통이다	73	54.9	42	33.6	115	44.6
	불만이다	47	35.3	80	64.0	127	49.2
	무응답	0	-	1	0.8	1	0.4
		$\chi^2 = 25.775$		$p = 0.000$			
전문직 발전의 기회	있다	38	28.6	45	36.0	83	32.2
	없다	90	67.7	80	64.0	170	65.9
	무응답	5	3.8	0	-	5	1.9
		$\chi^2 = 5.936$		$p = 0.051$			
업무량	너무 과다하다	27	20.3	35	28.0	62	24.0
	적당하다	96	72.2	83	66.4	179	69.4
	너무 적다	7	5.3	5	4.0	12	4.7
	무응답	3	2.3	2	1.6	5	1.9
		$\chi^2 = 2.264$		$p = 0.520$			
보건업무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에 만족여부	만족함	10	7.5	5	4.0	15	5.8
	그저 그렇다	71	53.4	40	32.0	111	43.0
	만족하지 않음	50	37.6	78	62.4	128	49.6
		$\chi^2 = 16.217$		$p = 0.001$			
보수	많은 편이다	4	3.0	0	-	4	1.6
	적당하다	86	64.7	56	44.8	142	55.0
	너무 작다	40	30.1	66	52.0	106	40.7
	무응답	3	2.3	4	3.2	7	2.7
		$\chi^2 = 16.201$		$p = 0.001$			
계		133	100.0	125	100.0	258	100.0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업 긍지 만족도를 보면 보건간호사로서 하는 일은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데 그렇다가 6급 및 7급은 88.0%가 응답하였고, 8급 및 9급은 83.2%로 높게 응답하였다. 업무에 대한 긍지여부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6,7급이 52.6%였으며 8,9급이 48.8%였다. 사회적으로 좋은 인식을 받는지의 여부에서 그저 그렇다가 6,7급이 62.4%였으며 8,9급이 66.4%였다. 자녀와 후배에게 보건간호사직을 권하실 의사 여부에서는 적성에 맞으면 권하겠다가 6,7급이 63.2%였으며 8,9급이 74.4%로 높았다. 보건간호사직에 계속 근무할 의사에서는 가능한 한 오래 근무할 예정이다가 6,7급이 78.2%, 8,9급이 74.4%였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의 타직장으로 이직할 의사 여부에서 없다가 6,7급이 69.2%였으며 8,9급이 51.2%, 있다가 8,9급이 46.4%였다(표 11).

표 11.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업긍지 만족도

분량내용	응답	6,7급		8,9급		계	
		인수	%	인수	%	인수	%
보건간호사가 하는 일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117	88.0	101	83.2	221	85.7
	참 모르겠다	14	10.5	19	15.2	33	12.8
	그렇지 않다	2	1.5	2	1.6	4	1.6
		$\chi^2 = 1.276$		$p = 0.529$			
업무에 대한 긍지 여부	긍지 보람을 느낀다	59	44.4	53	42.4	112	43.4
	그저 그렇다	70	52.6	61	48.8	131	50.8
	전혀 못 느낀다	3	2.3	8	6.4	11	4.3
		$\chi^2 = 3.968$		$p = 0.265$			
사회적으로 좋은 인식을 받는지의 여부	그렇다	31	23.3	24	19.2	55	21.3
	그저 그렇다	83	62.4	83	66.4	166	64.3
	그렇지 않다	19	14.3	18	14.4	37	14.3
		$\chi^2 = 0.670$		$p = 0.715$			
자녀와 후배에게 보건간호사직을 권하실 의사 여부	있다	21	15.8	17	13.6	38	14.7
	적성에 맞으면 권하겠다	84	63.2	93	74.4	177	68.6
	없다	28	21.1	15	12.0	43	16.7
		$\chi^2 = 4.565$		$p = 0.102$			
보건간호사직에 계속 근무할 의사	가능한 한 오래 근무할 예정이다	104	78.2	93	74.4	197	76.4
	다른 자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옮길 예정이다	14	10.5	21	16.8	35	13.6
	별리 그만두고 싶다	13	9.8	5	4.0	18	7.0
	무응답	2	1.5	6	4.8	8	3.1
		$\chi^2 = 7.329$		$p = 0.002$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의 타직장으로 이직할 의사 여부	있다	39	29.3	58	46.4	97	37.6
	없다	92	69.2	64	51.2	156	60.5
	무응답	2	1.5	3	2.4	5	1.9
		$\chi^2 = 8.708$		$p = 0.013$			
계		133	100.0	125	100.0	258	100.0

직급별 현 직급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적당하다에서는 6급이 63.6%, 7급이 70.0%, 8급이 36.7%, 9급이 13.3%였으며 너무 낮다에서는 6급이 36.4%, 7급이 30.0%, 8급이 63.3%, 9급이 86.7%로 하위급으로 내려갈 수록 현 직급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아졌다(표 12).

표 12. 직급별 현직급에 대한 만족도

직급	적당하다		너무 낮다		계	
	인수	%	인수	%	인수	%
6	14	63.6	8	36.4	22	100.0
7	77	70.0	33	30.0	110	100.0
8	33	36.7	57	63.3	90	100.0
9	4	13.3	26	86.7	30	100.0

보건간호사의 경력별 직무만족도를 보면 직급이 적당하다가 5년에서 9년 경력자가 59.3%였으며 너무 낮다가 10년 이상 경력자가 54.5%로 높았으며 경력이나 능력에 비해 승진기회 여부에서 불만이다가 4년이하 경력자가 48.9%, 5-9년이 45.1%, 10년이상인 54.5%로 높았다. 전문직 발전의 기회에서 없다가 4년이하가 60.0%, 5-9년이 65.9%, 10년이상인 72.7%로 높았으며 업무량에서 적당하다가 4년이하가 70.0%, 5-9년이 70.3%, 10년 이상인 67.5%였다. 보건업무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에 만족여부에서 만족하지 않음이 4년 이하가 57.8%, 5-9년이 47.3%, 10년 이상인 42.9%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5-9년이 49.5%였다. 보수의 만족도에서 너무 작다가 4년 이하가 57.8%로 높았으며 적당하다가 5-9년이 64.8%, 10년 이상인 61.0%였다(표 13).

표 13.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무만족도

평가내용	응답	≤4		5-9		10 ≤		합계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직급	적당하다	39	43.3	54	59.3	35	45.5	128	49.6
	너무 낮다	47	52.2	36	39.6	42	54.5	125	48.4
	무응답	4	4.4	1	1.1	0	0	5	1.9
		$\chi^2 = 9.739$				$p = 0.044$			
경력이나 능력에 비해 승진기회 여부	만족하다	3	3.3	9	9.9	3	3.9	15	5.8
	보통이다	42	46.7	41	45.1	32	41.6	115	44.6
	불만이다	44	48.9	41	45.1	42	54.5	127	49.2
	무응답	1	1.1	0	0	0	0	1	0.4
	$\chi^2 = 6.924$				$p = 0.328$				
전문직 발전의 기회	있다	36	40.0	29	31.9	18	23.4	83	32.2
	없다	54	60.0	60	65.9	56	72.7	170	65.9
	무응답	0	0	2	2.2	3	3.9	5	1.9
		$\chi^2 = 7.888$				$p = 0.056$			
업무량	너무 과다하다	21	23.3	23	25.3	18	23.4	62	24.0
	적당하다	63	70.0	64	70.3	52	67.5	179	69.4
	너무 적다	5	5.6	3	3.3	4	5.2	12	4.7
	무응답	1	1.1	1	1.1	3	3.9	5	1.9
	$\chi^2 = 2.883$				$p = 0.823$				
보건업무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에 만족여부	만족함	4	4.4	3	3.3	8	10.4	15	5.8
	그저 그렇다	33	36.7	45	49.5	33	42.9	111	43.0
	만족하지 않음	52	57.8	43	47.3	33	42.9	128	49.6
	무응답	1	1.1	0	0	3	3.9	4	1.6
	$\chi^2 = 12.030$				$p = 0.051$				
보수	많은 편이다	0	0	1	1.1	3	3.9	4	1.6
	적당하다	36	40.0	59	64.8	47	61.0	142	55.0
	너무 작다	52	57.8	29	31.9	24	31.2	105	40.7
	무응답	2	2.2	2	2.2	3	3.9	7	2.7
	$\chi^2 = 20.515$				$p = 0.002$				
계		93	100.0	91	100.0	77	100.0	258	100.0

보건간호사의 경력별 직업 긍지 만족도에서 보건간호사로서 하는 일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하다에서 그렇다가 4년 이하가 82.2%, 5-9년이 84.6%, 10년 이상인 90.9%로 높았다. 업무에 대한 긍지 여부에서 그저 그렇다가 4년 이하가 53.3%, 5-9년이 59.3%였으며, 긍지와 보람을 느끼다가 10년 이상인 55.8%로 높았다. 사회적으로 좋은 인식을 받는지의 여부에서 그저 그렇다가 4년 이하가 62.2%, 5-9년이 67.0%, 10년 이상인 63.6%였으며 자녀와 후배에게 보건간호사직을 권하길 의사 여부에서 적성에 맞으면 권하겠다가 4년 이하가 74.4%, 10년 이상인 71.4%로 높았다. 보건간호사직에 계속 근무할 의사에서 가능한 한 오래 근무할 예정이다가 4년 이하가 73.3%, 5-9년이 74.7%, 10년 이상인 81.8%였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의 타직상으로 이직할 의사 여부에서 없다가 4년 이하가 56.7%, 5-9년이 53.8%, 10년 이상인 72.7%, 있다가 5-9년이 44.0%였다(표 14).

이직할 의사가 있는 97명의 이직 이유를 보면 승진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 35.1%, 근무여건의 불만 때문이 25.8%, 보수가 적어서가 12.4%였다(표 15).

보건간호사의 대인관계 정도를 보면 상사와의 관계에서 보통이다가 67.4%, 좋은 편이다가 31.0%, 나쁜 편이다가 1.2%였다. 다른 직원과 원만한 대인관계 여부에서 그렇다가 55.4%, 그저 그렇다가 41.9%, 그렇지 않다가 1.9%였다(표 16).

보건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직무만족도에서 학력은 간호전문대학이 25.1, 간호고등학교가 24.8, 간호학과가 24.0으로 학력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보건간호사의 경력은 5-9년이 25.3, 10-19년이 25.3, 1년 이하가 25.6, 20년 이상인 25.2로 경력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현 직급별로 6급이 25.5, 7급이 25.6, 8급이 24.5, 9급이 23.5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직급이 낮을 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p = 0.001$)(표 17).

표 14.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업 금지 만족도

문항내용	응답	경력				계
		≤ 4	5-9	10 ≤	계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보건간호사로서 하는 일은	그렇다	74 82.2	77 84.6	70 90.9	221 85.7	$\chi^2 = 9.648$ $p = 0.047$
	잘 모르겠다	15 16.7	14 15.4	4 5.2	33 12.8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1 1.1	0 -	3 3.9	4 1.6	$\chi^2 = 14.835$ $p = 0.002$
	그렇다	33 38.7	36 39.6	43 55.8	112 43.4	
업무에 대한 금지 여부	그저 그렇다	48 53.3	54 59.3	29 37.7	131 50.8	$\chi^2 = 1.356$ $p = 0.744$
	전혀 못 느낀다	6 6.7	1 1.1	4 5.2	11 4.3	
	무응답	3 3.3	0 -	1 1.3	4 1.6	
	그렇지 않다	18 20.0	18 19.8	19 24.7	55 21.3	
사회적으로 좋은 인식을 받는지의 여부	그렇다	56 62.2	61 67.0	40 63.6	166 64.3	$\chi^2 = 7.226$ $p = 0.124$
	그렇지 않다	16 17.8	12 13.2	9 11.7	37 14.3	
	있다	13 14.4	18 19.8	7 9.1	38 14.7	
자녀와 후배에게 보건간호사직을 권하길 의사 여부	적성에 맞으면 권하겠다	67 74.4	55 60.4	55 71.4	177 68.6	$\chi^2 = 5.435$ $p = 0.489$
	없다	10 11.1	18 19.8	15 19.5	43 16.7	
	가능한 한 오래 근무할 의사가	66 73.3	68 74.7	63 81.8	197 76.4	
	다른 자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옮길 예정이다	16 17.8	12 13.2	7 9.1	35 13.6	
보건간호사직에 계속 근무할 의사	별로 그만두고 싶지 않다	4 4.4	8 8.8	6 7.8	18 7.0	$\chi^2 = 11.996$ $p = 0.017$
	무응답	4 4.4	3 3.3	1 1.3	8 3.1	
	있다	39 43.3	40 44.0	18 23.4	97 37.6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 외 타직장으로 이직할 의사 여부	있다	51 56.7	49 53.8	56 72.7	156 60.5	$\chi^2 = 11.996$ $p = 0.017$
	없다	0 -	2 2.2	3 3.9	5 1.9	
	무응답	0 -	2 2.2	3 3.9	5 1.9	
계		90 100.0	91 100.0	77 100.0	258 100.0	

표 15. 이직할 의사가 있는 97명의 이직 이유

이직 이유	인수	%
보수가 적어서	12	12.4
승진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34	35.1
근무여건의 불만 때문에	25	25.8
공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9	9.3
근무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0	10.3
기타	7	7.2
계	97	100.0

표 16. 보건간호사의 대인관계 정도

문항내용	응답	인수	%
상사와의 관계	좋은 편이다	80	31.0
	보통이다	174	67.4
	나쁜 편이다	3	1.2
다른 직원과 원만한 대인관계 여부	무응답	1	0.4
	그렇다	143	55.4
	그저 그렇다	108	41.9
그렇지 않다	무응답	5	1.9
	무응답	2	0.8

표 17. 보건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직무만족도

특성	인수	만족도 평균점수	df	F값	p값	
학력	간호고등학교	47	24.8	2	0.257	0.774
	간호전문대학	208	25.1			
	간호학과	2	24.0			
보건간호사 경력(년)	< 1	20	25.6	4	1.888	0.113
	1 - 4	70	24.1			
	5 - 9	91	25.3			
	10 - 19	65	25.3			
	20 ≤	11	25.2			
직급	6급	22	25.5	3	4.862	0.003
	7급	111	25.6			
	8급	94	24.5			
	9급	30	23.5			

고 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각종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 자신은 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1970년대 이전과 그 이후 역할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직무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불만족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보건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대별 보건간호사들이 수행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가족계획사업에 치중하였으며, 1970-1979년대에는 간호업무, 1980-1989년대에는 모자보건사업을, 1990-

1992년대에는 간호업무를 우선으로 했다. 70년대 이전에는 경제개발계획과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막기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정부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1960년 합계 출산력이 6에서 1990년 1.7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양재모, 1991). 그 이후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의 발전으로 질병 형태의 변화가 급성전염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70년대 이전에는 의료시설의 도시 집중으로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으로 의료의 혜택을 고루 받지 못했는데 보건소의 진료강화를 실시하여 70-79년에 간호업무에 역점을 두었다. 80년대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수혜의 혜택을 가져와 시대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연대별 가족계획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자궁내장치 삽입 권장과 경구피임약 또는 콘돔 배부에 역점을 두었다가 그 이후로는 가족계획 홍보를 우선으로 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피임인장에 치중하여 왔으나 가족계획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식수준이 높음에 비해 실천이 낮아 아직도 사업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가족계획 홍보로 바뀌었다.

연대별 모자보건 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 이전부터 임부등록에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산전진찰과 예방접종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나 임부등록을 하는 목적은 추후관리를 위한 것이데 등록한 산모나 영유아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는 평가된 바가 없다. 그러나 모자보건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이 가중되고 사업의 요구도가 확장되어 예산면, 인력면, 조직면과 내용 및 교육면의 강화와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연대별 결핵관리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각 년대마다 신환자 발견 등록에 치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자관리 및 투약주사에 비중을 두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결핵퇴치사업의 방법이 BCG접종과 신환자 발견 및 치료에서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연대별 간호업무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순회진료에 역점을 두었으나 70년대 이후에는 순회진료의 우선순위가 점차로

떨어졌다. 이것은 1970년대 이전에는 무의촌이 많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에게 진료를 해주기 위해 순회진료를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등이 설치되어 무의촌이 해소되었고 읍단위까지 의원이 증가하여 의료의 지리적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또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경제적 장벽도 낮아져 순회진료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건간호사의 전염병(성병, 나병, 법정전염병) 관리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예방접종이 항상 1위였는데 이것은 정부가 영유아의 기본 접종을 비롯해 뇌염, 최근에는 간염예방접종에 이르기까지 각종 예방접종을 주로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 온 탓일 것이다. 둘째로 투약 및 주사에 치중한 이유는 성명치료를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노인보건사업 내용의 우선순위 1위는 예나 지금이나 순회진료였는데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가정이나 마을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간호사의 직무는 주요보건문제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보건소 내에서 환자진료와 관계되는 활동이 있고 집단 또는 개인보건교육, 산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등과 같은 예방보건사업과 보건소 외의 활동은 미약하였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고, 보건소가 있는 군청소재지에는 민간 병의원이 없는 곳이 드문 시점에 진료위주의 업무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사업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라고 한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이것은 농촌주민들의 낮은 교육 및 경제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서 경력이나 능력에 비해 승진기회 여부는 불만이나가 8.9급이 64.0%로 나타났다. 이는 강성원(1983)의 78.0%의 불만보다는 낮았지만 승진기회에 대한 높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간호사가 계장직으로 발령이 잘되지 않고 있는 점도 승진에 대한 불만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관계 업무 중 보건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타직종의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간호사직에 전

답시킬 경우 업무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보건간호사의 승진기회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된다. 전문직 발전의 기회는 없다가 6,7급이 67.7%, 8,9급이 64.0%로 높았으며 보건업무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에 만족여부에서 그저 그렇다가 6,7급이 53.4%, 만족하지 않음이 8,9급에서 62.4%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급으로 내려갈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보수의 만족도에서는 적당하다가 6,7급이 64.7%, 너무 작다가 8,9급이 52.0%로 서수교(1987)가 보건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56.5%가 보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과 비슷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수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의 현실화 또는 자격 및 시간의 근무수당, 특수업무에 대한 수당지급과 같은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업 긍지 만족도에서 직급이 높을 수록 직업적 긍지의 직무만족도는 높았다.

여기서 직급별 현 직급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7급은 70.0%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9급은 86.7%가 너무 낮다고 했다.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무만족도에서 보건간호사 경력이 많을 수록 직급, 승진기회, 전문직 발전의 기회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간호사 경력이 많을 수록 직업적 긍지의 직무만족도는 높았다. 강성원(1983)의 지방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전문직에서 보이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의 타직장으로 이직할 의사가 없다는 사람이 60.5%도 높았지만 이직할 의사가 있는 97명의 이직 이유를 보면 승진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 35.1%로 보건직 공무원 가운데 이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41.3%(서수교, 1987)와 비슷하였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승진욕구는 매우 높으나 이들의 유구충족을 위해 상위직을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상위직으로 승진하려는 이유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도 실무담당자가 업무수행에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다면 굳이 승진하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보건간호사의 대인관계 정도를 보면 삼사와의 관계가 보통이다라는 사람이 67.4%, 다른 직원

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사람이 55.4%로 높고 삼사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람은 1.2%, 다른 직원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사람은 1.9%로 소수에 불과해 직장내 대인관계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직무만족도에서 학력이나 경력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고 직급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간호사는 원칙적으로 8급으로 보건소 이상의 기관에 채용되어야 하는데 읍면에 일반 9급 보건직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다. 직급이 보건간호사로서 사기와 긍지 그리고 역할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급의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변화되고 있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요구에 따른 연도별 보건소 간호사들의 역할 변화, 역할 수행에 따른 장애요인 및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는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자 1992년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상남도 보건간호사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간호사들이 수행한 최우선 보건사업은 1970년 이전에는 가족계획사업, 1970 - 1979년 대에는 간호업무, 1980 - 1989년대에는 모자보건사업, 1990 - 1992년대에는 간호업무이었다.

가족계획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에는 자궁내장치 삽입 권장과 경구피임약 또는 콘돔 배부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로는 가족계획 홍보를 우선으로 했다.

모자보건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부터 임부등록에 많이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산전진찰과 예방접종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각 년대마다 신환자 발견 등록에 치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자관리 및 투약 주사에 비중을 두었다.

간호업무 내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순회진료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사 및 투약에 치중하였다.

진염병관리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부

터 예방접종이 1순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투약 및 주사에 치중하였다. 1990-1992년대에는 상담 및 교육이 2순위로 나타났다.

노인보건사업 내용의 우선순위가 1979년대 이전부터 순회진료가 1순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검진보조가 2순위로 나타났다.

사업별 업무수행시 장애요인을 보면 가족계획 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 28.8%, 예산부족이 13.6%, 보건행정 체계 미비가 11.9%였으며, 결핵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 32.5%, 업무과다(인원부족)가 15.6%,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이 13.0%였다. 간호업무에서는 보건행정체계 미비가 18.2%, 업무과다(인원부족)와 시설 장비의 부족이 각각 15.6%, 주민의 이해부족이 13.0%였다.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서 경력이나 능력에 비해 승진기회여부는 불만이다가 8,9급이 64.0%로 높았으며 전문직 발전의 기회는 없다가 6,7급이 67.7%, 8,9급이 64.0%로 높았다. 보건업무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의 만족여부에서 하위급으로 내려갈 수록 만족도는 낮았으며 보수의 만족도에서는 적당하다가 6,7급이 64.7%, 너무 작다가 8,9급이 52.0%로 높았다.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업 긍지 만족도에서 직급이 높을 수록 직업적 긍지의 직무만족도는 높았다.

직급별 현 직급에 대한 만족도는 하위급으로 내려갈수록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아졌다.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무만족도에서 보건간호사 경력이 많을 수록 직급, 승진기회, 전문직 발전의 기회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업 긍지 만족도에서 보건간호사 경력이 많을 수록 직업적 긍지의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37.6%가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승진기회의 부족, 근무여건의 불만이 이직 이유였다.

학력과 경력은 직무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직급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1차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간호사의 인식이나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이 더 주어져야 할 것이며 보건간호사의 승진기회 및 직급에 대한 불만도가 높기 때문에 보건간호사의 승진제도

개선 및 직무영역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간호업무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경순. 간호사의 간호실천도와 간호수행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7
- 강성원. 지방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 지역개발대학원, 1983
- 김선희. 사회적 지지와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이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7
- 김성자.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 불만족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90
- 김화중. 선진국의 일차보건 의료사업. 월간간호 1981; 49: 59-65
- 김화중. 지역사회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87, 쪽 41-45, 257-259, 324-349
- 나명숙. 임상간호사의 실무교육 수용정도와 직무만족도 및 역할개념 지각정도와와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 노명희. 일부지역 보건간호사의 활동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3
- 도복늬, 이해현, 박상연. 한국간호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연구(II) - 근무만족도와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 중앙의학 1976; 31: 89-100
- 박앵호. 병사건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6
- 방용자, 김혜자.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의 실무교육 수용정도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985; 24: 39-53
- 서수교. 보건직 공무원의 실태 및 근무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7
- 양정자. 양호교사의 학교보건 직무만족도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간호 1986; 25(2): 49-71
- 양재모.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건의. 예방의학회지 1991; 24(1): 70-85

- 윤석옥. 보건진료원의 역할 스트레스 소진경험 정도와 직무만족도간의 관계 및 직무만족도의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5
- 정규철. 지역사회보건학. 수문사, 서울, 1990, 쪽 13-23
- 홍종관. 보건.사회관계법규. 계축문화사, 서울, 1991, 쪽 202
- Ford LC. *A nurse for all setting; The nurse practitioner. Nursing Outlook* 1979; 8: 516-521
- Marcia S, Jeanette LF. *Community health nursing. 2nd ed., The C.V. Mosby Company, Washington D.C., 1988, pp. 707-720*
- Margot JF. *Community health care and the nursing process. 6th ed., The C.V. Mosby Company, St. Louis, 1983, pp. 155-172*
- Ruthb F, Janet H.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2nd ed., W.B. Saunders Company, New York, 1981, pp. 27-52*